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2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84:1-4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30장(새 14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4번(새 24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주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뜻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모든 일에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요, 아침 안개와도 같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썩고 없어질 헛된 것을 위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을 기쁨으로 행하여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를 경외함으로 선한 믿음의 양심을 따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빌립보서 3:4-9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예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 봉 헌(offering) 375장(새 331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506장(새 453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다음 주일(18일) 친교시간 후에 믿음속 모임이, 마지막 주일(25일)에는 소망속 모임이 있습니다.
 - 믿음속(속장 : 송현진)
김연진, 김영희, 김희상, 석명선, 신성화/박인숙, 송금자, 유동진/이진옥, 이경자, 이진국/김성애, 정태옥, 허춘희
 - 소망속(속장 : 이춘희)
기길숙, 김희원/진판자 박준영/윤병옥, 신숙경, 심금자, 이정숙 이화자, 임숙재, 전영숙, 최은진, 허영희, 홍혜영
3. 캄보디아 조동천 선교사님의 암수술과 회복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위암수술과 회복을 위해)

〈말씀묵상〉 빌립보서 3:4-9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4-7절)
2. 그러한 것들을 해로 여기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8-9절)

❖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누구를 만나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누구인지 간에 반드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좋은 학군 등을 찾아 다닙니다. 그런 곳에 가면 좋은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러한 조건들은 우리를 더욱 정욕적이고 탐욕스런 인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고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몸 부릴 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바울은 좋은 배경과 환경에서 나고 자란 당대의 학문적이고 종교적인 엘리트였고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그것은 겉데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의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신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실상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했을 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구제불능의 죄인이요, 악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은 비참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만 자신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